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0. 11. 25.(수) 총 4매(본문3, 참고1)	
국토 교통부	공항정책과	담당자	• 과장 방현하, 서기관 강철윤, 주무관 김은철 • ☎ (044) 201-4328, 4333, 4305	
	해외건설 지원과	담당자	• 과장 김기용, 사무관 김길중 • ☎ (044) 201-3526, 3530	
인천국제 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 해외사업처	담당자	• 처장 김학철, 팀장 이채우 • ☎ (032) 741-5395, 5293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신공항, 우리 노하우로 밑그림 그린다

- 일본 나리타공항과 최종 경쟁하여 컨설팅 사업 수주 -
 - 향후 3년간 폴란드 신공항 계획과정에 인천공항 노하우 전파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한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 위한 전략적 자문 컨설팅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어 연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앞으로 3년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서 △공항개발 및 운영 백서 작성 △마스터플랜 보고서 검토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항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며, 예상 계약금액은 56억원이다.
- 폴란드 정부는 기존의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공항의 시설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급증하는 항공여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 계획 중인 폴란드 신공항은 연간 여객수용능력 4천 5백만 명 규모로서, 공항뿐만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 등 동유럽 최대 규모의 복합 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초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로 연간 여객 1억 명이 이용하는 세계 10대 공항으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이에 폴란드 정부는 2018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공항추진단을 설립하여 신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신공항 전략적 자문사 선정을 위해 글로벌 공항운영사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발주한 바 있다.
- 입찰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본 나리타 공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기술·가격 평가를 거쳐 지난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24일 폴란드 신공항 사업의 최고득점사로 선정되었다.
- 폴란드 정부는 인천공항의 부지선정부터 성공적 개항에 이르는 신공항 건설 노하우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공항 운영 성과를 비롯해, 지난 2018년 제2여객터미널의 성공적 개장 및 쿠웨이트공항 위탁운영사업 수주에 이르기까지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이번 수주는 관련 정부 부처의 전폭적 지원과 협력을 밑받침으로 이루어낸 쾌거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장관 명의의 서신을 발송하고 외교부는 외교부장관간 전화외교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온바 있다.
- 금번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되면 향후 신공항 공항 건설과 운영뿐만 아니라 지분투자까지 참여하는 전략적 파트너로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전략적 자문사 선정을 바탕으로 향후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며, 향후 설계, 건설, 기자재 수출, 공항 운영을 비롯한 신공항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동반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이번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 전략적 자문 컨설팅 수주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항공 산업의

위기 속에서 인천공항이 보유한 세계수준의 공항운영 노하우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쾌거이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이를 계기로 세계 신흥시장 공항사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강철운 서기관(☎ 044-201-4333), 해외건설지원과 김길중 사무관(☎ 044-201-35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우 팀장(☎ 032-741-52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개요는 폴정부의 기본구상으로, 향후 MP 수립단계('21년 수립 예상)에서 사업내용, 사업비 등 구체화 예정

- (사업명)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Solidarity Transport Hub)
 - 공항, 접근철도, 배후도시 개발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
- (사업목적) 현 쇼팽공항 대체, 중동부 유럽 최대 허브공항 건설
- (사업규모) 공항 - 연간 45백만명 처리(최종단계 1억명)
 철도·도로 - 철도역(공항과 연결), 연결 철도·도로 신설 등
 도시 - 공항인접지역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
- (총사업비) 약 10조원(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산정한 금액)
 - 공항 40~50억불, 철도 20~30억불, 도로 17억불
- (자금조달) 각 부분별 자금조달 모델 상이
 - 공항 - 민간 참여 + EU 기금(폴재정 일부)
 철도·도로 - 폴정부 재정 + EU 기금
 도시 - 미정(영리목적 부동산 개발 등 감안하여 결정 예정)
- (사업기간) '19~'27년 * 폴측은 완료시점이 '30년으로 연장 가능함을 언급
- (사업구조) 공항·철도·도시 등 3개 부분 모두를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한국, 일본, 싱가포르를 공식 초청)
 - * 폴정부는 본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3개 부분(공항, 철도, 도시)을 각기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여 추진 가능할 수도 있음을 언급
 - 공항을 최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며, 자문 서비스 및 사업관리에서 공항건설 및 운영, 투자까지 넓은 범위의 협력 가능
 - 합작회사(전략파트너와 폴정부)에서 공항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며, 선정된 전략 파트너가 독점적인 지분 취득도 가능